

“목포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적”

공론화위 최종 권고문 발표... 경영 효율화·관리감독 강화 등 선행 조건

목포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운영체제로는 준공영제가 꼽혔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영 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9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권고문에서 시내버스 운송원이 개선과 절감 등을 위한 감차, 중형 및 준중형 버스로의 단계적 전환, 가수금 전환과 대표이사 급여의 현실화 등 오너의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채용과 전담팀 구성,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현금수입금 투명성 확보 등도 요구했다. 특히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가장 적합한 시내버스 운영체제로 선택한 '준공영제'를 적절한 시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내버스 경영효율화의 실행과 노선개편 및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목포시 주도의 감차 및 경영개선 유도 후 준공영제 시행 로드맵 제시를 제안했다. 목포시는 공론화위의 권고문이 제출된 만큼 검토 후 수용 여부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영(세한대 교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권고문에 기반한 강력한 경영개선과 관리감독 등을 통해 시내버스의 위기가 전화위복돼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더욱 굳건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월 경영난을 이유로 버스가 휴업을 신청하면서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5월 구성됐다. 지난 6개월동안 시내버스 운영 권고문 마련을 위해 13차례 회의와 현장실사, 외부감사, 전문가 컨설팅,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항 민간항만 CCTV 연계 구축’ 완료

목포해수청, 보안 효율적 관리·감시체계 강화 기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8월 착공한 ‘목포항 주요 민간 항만과의 CC-TV 연계 구축사업’을 10일 준공한다. 그동안 목포항 종합상황실은 이원화된 운영시스템으로 일부 부두의 보안 상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으로 각 부두의 CC-TV를 종합상황실로 연결함으로써 현장과 종합상황실에서의 이중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 목포해수청은 이번 사업 준공으로 위해요소 사

전 차단 등을 통한 보다 더 강화된 보안관리 체계 하에서 현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관리되는 부두는 민간 부두인 현대삼호부두, 대불 우송조선부두와 국유부두인 완도항 제3부두 등이다. 김현성 목포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항만 CC-TV 연계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원활한 물류흐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항만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블루나눔재단, 영광군에 내복 1500벌 기증

KH 그룹이 설립한 블루나눔재단이 겨울을 맞아 영광군에 내복 1500벌을 기증했다. 지난 8일 영광군청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양종욱 블루나눔재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의 취약계층과 스포츠 위기를 통한 장년층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기증을 결정했다는 게 블루나눔재단 측 설명이다. 전달된 내복은 영광군 관내 취약계층과 장년층,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영광이 고향인 배상운 블루나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내복 기증으로 고향의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이익의 나눔과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나눔재단과 KH그룹은 지난해 4월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을 위해 1억원을, 지난 10월에는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KH그룹은 그랜드하얏트호텔서울과 코스피 상장사인 조명 회사 KH필름스,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IHQ, 코스닥 상장사인 KH일렉트론, KH이엔티, 장원테크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 2월에는 지난 200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앞두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완도군 “해양기후 치유, 면역 강화 효과 입증됐다”

‘정밀 의료’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 2년간 참가자 건강 변화 측정

해양기후 치유가 체력 증진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지난 7일 ‘해양기후치유 정밀 의료 기념 적용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해양기후치유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정밀 의료’란 유전자 중심의 맞춤 의료에 개인의 생활 습관, 환경,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군은 지난 2년간(2020~2021년) 50~60대 여성 80명을 모집,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숙박형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5박 6일간 숙박, 식이, 기후치유 등 통합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전후 효과 평가·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건강 변화를 측정한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프로그램 참여 후 체력 증진, 면역 강화, 혈압 정상화, 체내 지방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당뇨, 고지혈증, 염증,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등의 수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은 전했다. 스트레스 저하와 만족도 상승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해조류 식단을 통해 영양도 챙겼다.



신우철 완도군수 주재로 지난 7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해양기후치유 정밀 의료 기념 적용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사업 수행자인 고려대학교 이은일 교수는 “참가자 모두 건강 증진 효과를 보았으며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건강 증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검증됐다”면서 “앞

으로 완도의 정정 환경을 활용한 숙박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

영광군, 내년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0~1세 가정 양육아 대상

영광군이 오는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0~1세)을 대상으로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포함한 수당(0~1세 30만원)으로 오는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

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아수당 시행으로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해남군, 밀 전용 건조·저온저장시설 공모 선정

18억 확보... 현산농협에 설치

해남군이 2022년도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자급률을 높이고 재배면적 확대 등을 위해 공모사업을 했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7억2000만원을 포함한 18억원을 들여 현산농협에 국산밀 전용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한다.

이 시설은 기존 사이로(저장탑) 시설 개념에서 벗어나 정밀한 습도·온도관리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밀 전용 저온저장 시설이다. 해남군 국산 밀 재배면적은 1183ha, 전국 대비 19%로 전국 최대 주산지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밀은 국내 자급률이 1%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생산한 밀도 건조·보관시설이 없거나 낙후돼 재배면적 증가 및 품질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